

여수시, 고용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최우수'

전남 시·군 유일 선정...포상금 2000만원



주철현 여수시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14일 서울 국민일보 빌딩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으로부터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인팔 여수시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위원장, 김영주 장관, 주철현 시장, 서대민 여수시 산단지원과장.

여수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평가에서 전남도 시·군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2017년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우수기관 시상식이 열렸다.

여수시는 이날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한 공로로 기관 최우수상과 포상금 2000만 원을 받았다. 김영표 여수산단건설업협의회장도 노사민정협력 유공자로 뽑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여수시의 우수사례는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협력강화를 위한 '지역산업평화 구축을 위한 노사소통 119' 사업이었다. 또 시는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차별 해소를 위한 토론회 개최, 4대 필수 안전수칙 전개 등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이를 통해 여수산단 플랜트건설 노사 7년 연속 무분규 임금타결을 이끌기도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서류심사와 10월 우수사례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15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성숙한 노사민정협력 문화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요건"이라며 "내년에도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와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아프리카 우간다 장흥군서 버섯산업 희망을 찾다

기술교류 및 파트너십 요청...위즐리엔컴퍼니(주) 투자자문단 대상 기업유치 설명회도

아프리카 우간다 농림축산수산부(MAAIF) 농업공무원 3명과 위즐리엔컴퍼니(주) 투자자문단 2명이 지난 14일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간다에서 자국민의 신규 소득창출을 위해 장흥군의 포고버섯을 비롯한 주요 소득작물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간다 방문단은 버섯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도입 및 교류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우간다는 인구의 약 7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국가이나 낙후된 기술과 부족한 자재 탓에 해마다 농업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다.

이날 방문단은 장흥군정을 방문해 농업현황과 지원사업 및 농산물의 브랜드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으로 이동해 지역 버섯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시설을 둘러봤다.

참가자들은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지역에 적합한 포고버섯 신품종 육성과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의 개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등 진지한 분위기 속에 방문일정을 소화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에서는 위즐리엔컴퍼니(주) 투자자문단을 대상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도 가졌다.

우간다 측의 콘솔라타 아카요 팀장은 "장흥군이 지역 버섯산업의 육성과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



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사업과 지원시책에 대해 놀랐다"며, "우간다의 버섯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교류 및 파트너십 유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성 장흥군수는 "우간다 정부에서 기술지원에 대한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앞으로 장흥군의 농업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발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완도군, 군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행정 펼쳐 '눈길'

소통·회합위원회 2차 정기회의 개최



완도군이 민선6기 역점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군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행정' 펼쳐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제2기 완도군 소통·회합위원회 2차 정기회의가 군청 대회의실에서 위원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14일에 개최됐다.

이번 2차 정기회의는 2017년을

돌아보고 그 동안 5개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69건의 군정제안, 군민불편사항, 제도개선사항 등의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 등을 설명하고 공유

하는 정기회의와 소통·회합위원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됐다.

신우철 소통·회합위원회 위원장은 "군민불편사항, 제도개선사항 위주로 군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고, 듣고, 느낀점 등을 각 분과별 분기회의시 논의를 통해 개선되고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완도군은 소통·회합위원들이 제안한 주요사항들에 대해서 관리카드화해 처리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될 때 까지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소통과 화합행정'의 실행을 위해 외판심 이동군수실, 농수축산업 현장 이동군수실 등을 운영하며 군민과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완도=김평수 기자

지역구관·미래창조·경본직립
湖南新聞
전원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장흥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긴급구호비 지원

6가구에게 50만원씩

장흥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읍장 백형갑, 공동위원장 강경일)는 지난 13일 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세대를 발굴하여 각 세대당 긴급구호비 50만원씩 6가구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된 긴급구호비는 전남공동도모회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관협력배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 취지에서 추진했다.

장흥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월 22일 회의에서 자녀들의 부양능력으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되었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생계가 어려운 중장년 1인가구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장흥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긴급구호비 지원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되기를 바라며 협의체가 한 마음 한뜻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온정 가득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진도군,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빨감 나누기' 실시



진도군이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20여톤의 '사랑의 빨감'을 전달했다.

지난 14일 숭가꾸기 사업과 가로

수 가지치기 등에서 발생하는 산림 부산물을 이용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빨감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한달 동안 진도군 산물 조제단에서 목재의 부산물 수집과 운반, 토막 자르기를 실시했으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빨감 수요 조사

를 통해 20여세대를 선정해 세대당 100다발의 빨감을 전달했다.

진도군 녹색산업과 관계자는 "사랑의 빨감이 겨울철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라 고통을 겪는 저소득층의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빨감 나누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산타와 나누는
담양 겨울 이야기
2017 담양 산타축제
2017 DAMYANG SANTA FESTIVAL
12.15 ~ 12.31
담양읍 원도심 및 메타프로방스 일원